

내가 그라 (요한복음 4:9-26)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라'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이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은 생명의 떡이었다. 이 떡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 떡은 광야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거와 상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었다. 광야든지 말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떡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었다. 그래서 이 떡이 그들에게 완전 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용할 떡이었다. 매일 내려오는 떡이었다. 그리고 그 날 먹을 것만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셨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내일을 위한 것은 내일을 위하여 따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의 그리스도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귀한 메시지이다. 우리가 237연약으로 잡고 있는데, 그리스도 없이는 237 안된다. 그리스도는 근본이고 237은 사명이다. 그리스도를 그냥 뛰어넘어서 237 잡고 있으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난다. 안 잡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리스도로 먼저 출발해야 한다. 모세는 것먹이 때부터 그리스도를 전달받았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사명을 주셨다. 그때의 가나안은 지금의 237이다. 요셉도 어릴때부터 아버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받았다. 어느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것이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그 인생의 그림이었다. 사도바울은 전혀 예상을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와 사명을 동시에 받았다. 사도바울은 그 때 아주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순교할때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이였다. 우리도 근본 언약, 그리스도를 항상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사명 237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혼자서 237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자에게 나의 237이 있다. 이 237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예배하기 바란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백은 오늘 것이다. 내일 고백은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계속하면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것이다. 되든지 안되든지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고 있으면 된다. 반드시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안되는 일은 절대 없다. 단지 다른 것을 하면 안된다.

1. 내가 그라

오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이야기이다. 아주 어려운 여성이었다. 아무리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환장할 노릇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 역전되어 버렸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과 9절사이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에 있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서 시비가 붙으니 잠시 자리를 피하여 갈릴리로 가려고하셨다. 그런데 갈릴리는 북쪽이라서 거기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다. 예수님은 그런데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하면서 한 우물에 앉아 계셨다. 9절에 보면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다. 그러니 그 여자 말로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하였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절대 섞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고 바로 말을 했다. 여자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는 답이었는데, 10절에 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줄 알면 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물 말고 생수를 주었을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고 당신 자신이다. 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구원을 알면 오히려 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11-12절에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해 못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는 것이다. 여자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다. 이런 험한 인생을 산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여자의 성격이 좀 센 여자였을 것이다. 아마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러니 좌충우돌하고 싶었을수도 있다. 그

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은 안하시고 12-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여자가 더 화날 말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하셨다. 그렇잖아도 기분이 안 좋는데 그러니 15절에 그 물을 내게도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에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라고 하였다. 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도 이 여자와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자가 기분 나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관계 없는 말을 해서 정곡을 찔렀다. 지금 물 이야기 하는데 남편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자에게 말해서 남편 데려오라고 했다. 이 여자가 남편 없다고 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 니 남편은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니 남편 아닌 것을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예수님이 길게 말 안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셨다. 니고데모 만났을때도 너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없다고 바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19-20절에 여자가 자기가 보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한 것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마자 드는 생각이 예배였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위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평생에 예배에 대해서 상당한 한이 맺힌 여자였다. 인생은 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유대인은 못하게 하고 하니 마음에 맺힌 것이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는가? 안한다. 그러면 죽는다. 사마리아인은 앗수르 남자와 유대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적인 생각이 없고 피가 아니니 너희들은 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21절부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시원하게 답으로 주셨다. 이제는 장소에 관계 없이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여자에게 답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여자에게서 더 놀라운 소리가 나왔다. 그것이 25절이다.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줄을 아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사마리아인인데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었다. 이 때 예수님이 26절에 말했다. 지금 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 그대로 놔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미친 듯이 이야기 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여인의 맘속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결론났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온 동네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유하기를 원했다. 이들을 더 있었는데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말씀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자 41절에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니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진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여자 말 듣고 가서 들었는데 진짜 들어보니 진짜라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일단 이 여자는 보통 사마리아 여인과 달랐다. 인생은 그렇게 험해도 확신이 있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돌맞아 죽을 이야기이다. 사마리아인이 야곱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여자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다. 야곱은 우리 조상이다.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거기 늘 오면서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생각했다.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하여 아주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다.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되는 것이다. 갈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인생이 험악해도 이 은혜가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방인들중에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종종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자에게 평생의 답이 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맘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났냐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양심적으로. 이 여자는 답 나버렸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은혜이다. 물동이 같은 것은 신경 안쓴다. 그 즉시에 전도자로 변신되어 버렸다. 이 여자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고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답은, 그거 하나 뿐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기 약점을 이야기 하면 아주 싫었을 것이다. 안

그래도 분한데 그 약점을 이야기 하면 싸움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 길러 낮 12시에 온 것이다. 아마 이 여자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 역전 원하면 그리스도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 만나는 것은 관심도 없으면서 인생 역전은 그렇게 원한다. 스스로는 못 시키니까 역전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종교기도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1번이 아닌 모든 것은 종교이다. 모든 것이 다 필요없다. 종교전도, 종교기도, 다 필요없다. 참된 인생 역전은 전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다 그랬다. 교회사에 있는 인물들도 다 그랬다. 복음부터 출발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먼저 언약으로 잡았겠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복음도 없는데 누구에게 언약으로 주겠는가? 먼저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심고 그 다음에 시간표에 따라서 237 나오는 것이다. 당연히 요셉도 그렇고 사도바울,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렇다. 예외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역전은 항상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메시지가 뭐가? 너도 인생 역전 원하냐? 그러면 너도 그리스도 만나라는 것이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너는 오늘도 그리스도 만나라는 것이다. 내일은 내일 또 양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왜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부터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어떻게 만나냐?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네 발견되어지면 그게 만나는 것이다. 여기가 출발이다. 그냥 출발만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과정도 이것이고 여기에 능력권세 다 있다. 그 나머지는 이게 되어진 만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한번 믿고 놔두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 헌신이 나쁜건 아니지만 틀렸다. 그건 백점이지 아니다. 0점은 아니지만 50점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 쉬워지고 공짜가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100%가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다.

2. 전도자인생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전도자로 바뀌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유튜브에 간증 들어봐도 꼭 있다. 그가 전도자로 바뀌었을 때 그의 과거는 전도컨텐츠로 바뀌었다. 그여자가 다른 말 한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한 사람에게 와보라. 그리스도 아니냐? 과거에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그랬지만 그것이 전도컨텐츠가 되었다. 우리도 되돌아 보면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축복도 이유가 있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고난이 와도 결국은 축복의 이유로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당한 그 일을 바탕으로 전도한다. 이 여자도 당연히 그랬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춘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온 동네가 알아맞춘 사람은 뭐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고난을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가서 한마디 하면 온 동네가 들쭉거릴 만큼 이 여자의 고난은 유명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유명한 고난 되기 바란다. 이래서 온 동네를 살리는 역전인생이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힘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 힘든 분들 낙심하지 말기 바란다. 때가 있다. 내게 이유가 남아 있다. 반드시 그 때가 오게 되었다. 그러니 되든지 안되든지 할 것은 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다. 간단하다. 다른 것 할 필요 없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한다. 다른데 가면 속게 되어 있다. 나중에 다른 열매가 맺힌다.

이제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한이 풀렸기 때문에. 과거의 어려움, 현재의 어려움 문제 아니다. 그 속의 한이 풀렸다.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안가도 된다고 하니 답 난 것이다. 동네에서도 이제 이 여자 무시 못했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 인생 모든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처음에 한번 근본 역전 한번 일어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역전되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한번 만나고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잡을 것, 간단하다. 한 개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

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 은혜가 안되면, 머리에만 있고 감동이 없으면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 나는 왜 그러냐고 기도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계획 알수 없다. 이 여자는 자기 인생에 불만 많았다. 아마 예수님과 대화할때도 분노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터지기 일본 직전이었지만 참고 대화했을 것이다. 나는 죽겠는데 이게 무슨 동탄지 같은 소리를 하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같지 않다. 아마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수없이 질문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럼니까? 왜 내 인생은 안 풀려요? 머리가 나쁘거나 수준이 낮은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영적인 감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정리할만한 논리도 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야곱이 우리 조상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정리가 다 되는 여자이다. 그런데 인생이 안 풀려. 한나와 비슷하다. 하나님, 왜 나는 아들이 없냐는 것이다. 진짜 아들을 나오라고 그런 것이다. 이 여자는 진짜 인생 역전을 해서 온 동네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역전되는줄을 믿기 바란다. 언약 잡아야 한다. 렘넌트들도 전부 마찬가지로이다.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역전된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험악한 인생 중에서도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있었다. 사실은 영적 엘리트였다. 그런데 인생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다.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이다. 또 얼마나 억울해 했겠는가? 아마 속에는 말 못할 분노와 악을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여자가 그 동네에 살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올 시간표에 맞춰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물 한잔 주라고 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물을 마시지는 않았다. 생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먹을 것을 가져 왔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이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걸 해야 살아.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일을 했다. 동네사람들을 이 여자를 통해 살렸다. 이것이 내 양식이야. 우리도 이렇게 되기 바란다.

우리의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다. 그러면 육신적 양식은 하나님 손에 있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6:33절이다. 니가 육신의 양식을 직접 구하냐? 니가 이방인이냐? 너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출발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주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지면 계속 발전이 된다. 기도가 깊어진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내 중심에 자리잡는다. 그리고 기도가 되고 계속 깊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다른거 다 필요 없다. 이것만 하면된다. 예수님이 이것이 내 양식이고 너희들도 이 양식을 먹으라고 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중심이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러나 그거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한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다. 이것 위해 모세가 어렸을 때 듣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했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믿어지는 것은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정말 마음에 심어야 한다. 우연아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막힌 타이밍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누가 말하겠는가?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사람들이 속속 일어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여자처럼 되기 원하신다.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다른거 필요 없다. 하루 내도록 이것만 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답아야 한다. 안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봐도 나중에는 헛일된다. 속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이게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가슴에 박히는 소리 되기 바란다.

이 여자는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이제는 다 괜찮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이다. 믿어지는 은혜 있기 바란다. 다시 한번 언약 잡기 바란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큰 축복을 누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바란다.